
2018년 1/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8년 1/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0개사

○ 기 간 : 2017년 12월 4일 ~ 2017년 12월 15일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8년도 1/4분기 전망치 및 2017년도 4/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2. 2017년 4/4분기와 2018년 1/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1.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BSI '73'으로 여전히 기준치 '100' 밑돌아
- 그러나 새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심리 반영
2017년 4/4분기 전망치 '54' 대비 '19' 포인트 상승

I |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올 1/4분기 전망치는 「73」로 BSI 기준치인 100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분기(4/4분기) 「54」과 비교하여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분기 전망치가 2012년 이후 7년 연속 (2012년 89, 2013년 65, 2014년 1분기 86, 2015년 86, 2016년 65, 2017년 60) 기준치(100) 이하로 나타났다.

- 작년 한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리스크와 함께 중국정부의 사드보복과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FTA 재협상 요구,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통상 교역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연초부터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 성장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기업들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따른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주지역 자동차 및 철강 제조업체들의 대내외 경쟁력 약화로 생산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옅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다스 수사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영불안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4분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 경주지역 제조업체는 2018년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두고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와 비슷(46.0%), 악화(34.0%), 호전(12.0%), 매우 악화(8.0%)로 응답해 약 88%가 올 경제 흐름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경영리스크는 달라진 노동환경(43.4%),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23.7%)을 꼽았으며 대외 경영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변동(27.1%), 중국의 사드보복(20.0%), 중국과 미국 등 통상 마찰과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18.8%), 북핵 리스크(10.6%) 순으로 응답하였다.
- 올해 경영계획에서 지역 제조업체 중 90%가 ‘보수적 경영’을 10%만이 ‘공격적 경영’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런 경영계획에 따라 74%는 ‘투자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고, 26%만이 ‘투자를 늘릴 계획’ 이라고 응답했다. 또 신규 인력 채용은 ‘작년 수준 유지’ 40%, ‘작년보다 늘릴 것’과 ‘작년보다 줄일 것’이 각각 18%로 답했으며, 아직 계획이 미정인 업체도 20%나 조사되었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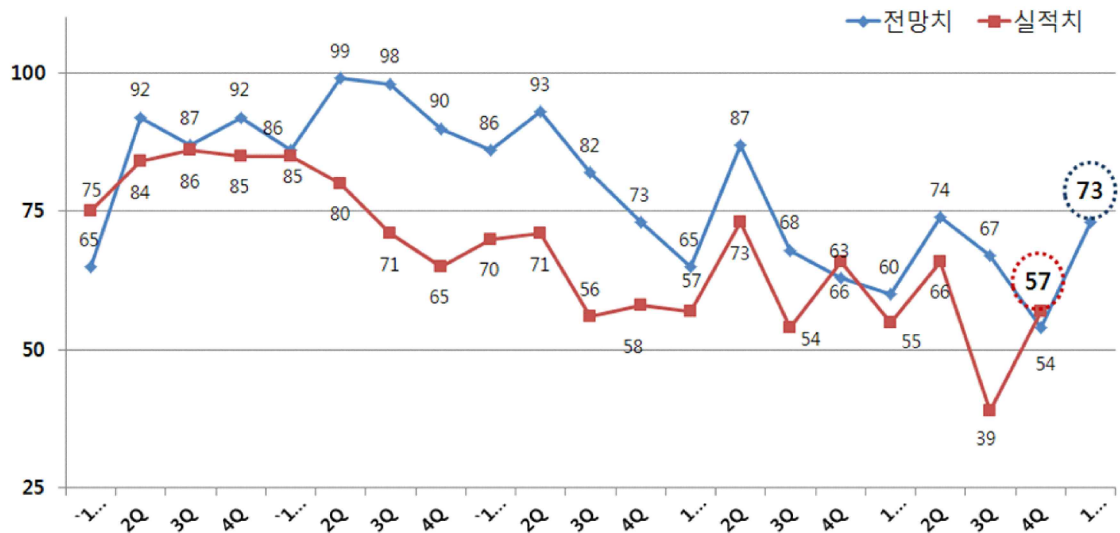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망치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73
실적치	56	58	57	73	54	66	55	66	39	57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7년 4/4분기 실적 대비 2018년 1/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50→76), 내수 매출액 (60→78), 수출 매출액 (62→74), 내수 영업이익 (56→72), 수출 영업이익(54→66), 자금조달여건(60→70)으로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17년 4/4분기 실적 대비 '18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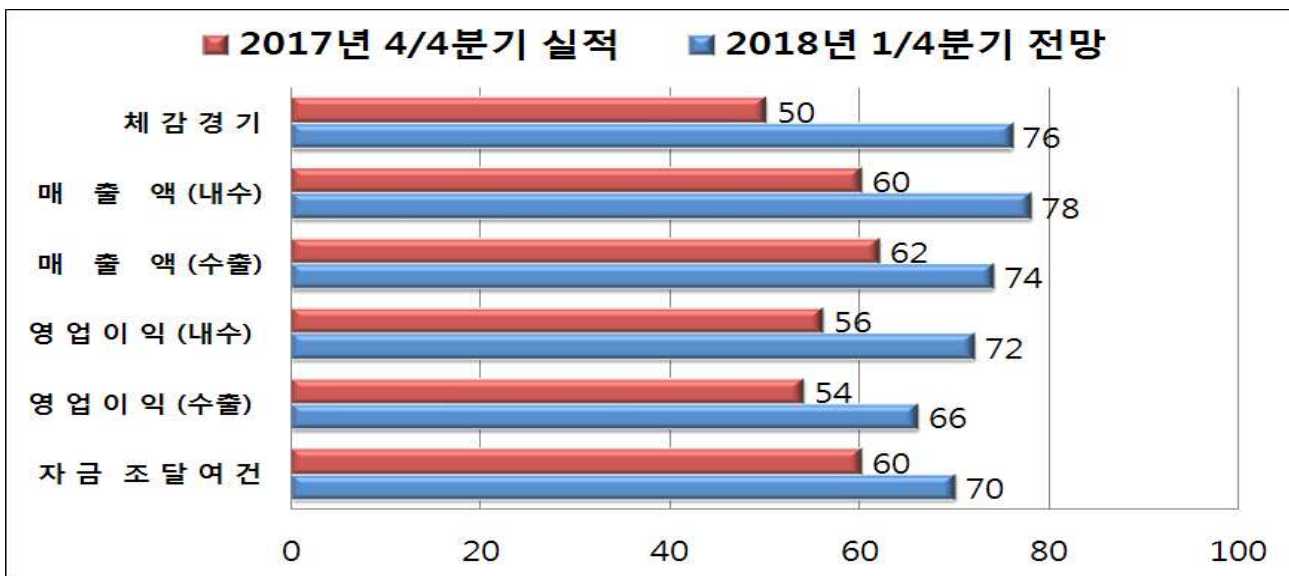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기 간 항 목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1/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수출										55	62	62	74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수출										45	47	54	66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설비투자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1 “2018년 경제흐름은 2017년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 올해와 비슷 (46.0%), 악화 (34.0%), 호전 (12.0%), 매우 악화 (8.0%), 매우 호전 (0.0%)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올해와 비슷	23	46. 0%
악화	17	34. 0%
호전	6	12. 0%
매우 악화	4	8. 0%
매우 호전	0	0. 0%
합 계	50	100%

2 “2018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는 무엇입니까?”

- 달라진 노동환경 (43.4%),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23.7%), 기타 (13.2%), 가계 부채 (9.2%), 반기업 정서 (6.6%), 에너지믹스 변화 (3.9%)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달라진 노동환경	33	43. 4%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18	23. 7%
기타	10	13. 2%
가계 부채	7	9. 2%
반기업 정서	5	6. 6%
에너지믹스 변화	3	3. 9%
합 계	76	100%

3 "2018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는 무엇입니까?"

- 환율 변동 (27.1%), 중국의 사드보복 (20.0%), 美·中 등과 통상마찰,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가 각각 (18.8%), 북핵 리스크 (10.6%), 기타 (4.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환율 변동	23	27.1%
중국의 사드보복	17	20.0%
(美·中 등과) 통상마찰	16	18.8%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	16	18.8%
북핵 리스크	9	10.6%
기타	4	4.7%
합 계	85	100%

4 "2018년 사업 계획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90.0%), '공격적'이라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보수적	45	90.0%
공격적	5	10.0%
합 계	50	100%

5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투자를 늘릴 계획이십니까?"

-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4.0%),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늘리지 않을 것	37	74.0%
늘릴 것	13	26.0%
합 계	50	100%

6 “2018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상 유지 (30.8%)**, 해외 신시장 개척, 사업 구조조정이 각각 (15.4%), 노후기계 교체 (13.9%), 대내외 리스크 관리, 사업 확장이 각각 (9.2%), 인력 충원 (4.6%),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현상 유지	20	30. 8%
해외 신시장 개척	10	15. 4%
사업 구조조정	10	15. 4%
노후기계 교체	9	13. 9%
대내외 리스크 관리	6	9. 2%
사업 확장	6	9. 2%
인력 충원	3	4. 6%
기타	1	1. 5%
합 계	65	100%

7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채용 인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2017년과 비슷”이라는 응답이 (40.0%)**, “계획 미정”이라는 응답이 (24.0%), “2017년보다 늘릴 것”, “2017년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8.0%) 순으로 나타났다.

<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2017년과 비슷	20	40. 0%
계획 미정	12	24. 0%
2017년보다 늘릴 것	9	18. 0%
2017년보다 줄일 것	9	18. 0%
합 계	50	100%

8 “2018 한국경제 키워드를 골라주십시오.”

- 불확실성에 가려진 경영시계 (35.6%), 함께 더 멀리 동반성장 (18.9%),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15.6%), 경기 회복의 완전한 꿈,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이 각각 (8.9%), 성장의 열쇠 규제개혁, 고르디우스 매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각각 (4.4%),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2.2%), 보호주의 장벽 뛰어넘기 (1.1%)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불확실성에 가려진 경영시계	32	35.6%
함께 더 멀리 동반성장	17	18.9%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14	15.6%
경기회복의 완전한 꿈	8	8.9%
최고의 복지 일자리창출	8	8.9%
성장의 열쇠 규제개혁	4	4.4%
고르디우스매듭 노동시장 이중구조	4	4.4%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2	2.2%
보호주의 장벽 뛰어넘기	1	1.1%
합 계	90	100%

<끝>